

古地圖에 관한 研究資料

邢 基 柱

二十世紀後半의 地理學은 高度로 分化되고 그 應用面에 있어서도 相當한 努力을 加하고 있다. 따라서 그 研究方法도 多彩로운 資料를 驅使함은 勿論이다 地理學史에 關心을 갖다보니 韓國에 關한 古地圖의 資料蒐集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數에 있어서나 그 種類에 있어서 實로 헤아릴수 없을 程度이며 그 大部分이 死藏된채 남아있음을 알게되었다. 아직 完成을 보지못한 研究의 一斷面이지만 關心있는 學徒들을 爲해서 各種資料를 찾아보기 쉽게 提供하기로한다.

一. 古地圖研究의 必要性

地理學이 發達한 過程을 더듬어보면 特히 西洋에 있어서 그 相當한 部分은 圖學의 發達에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음을 알수있다. 무엇보다도 近代地理學이 成立하기까지에는 人類가 地球에 關한 知識을 그들이 남긴 書籍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地圖上에 잘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古地圖는 過去 人類들의 地理的視野나 地理觀을 測定할수있는 바로메타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歷代의 地圖는 地理學史의 體系를 세우는데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實證的 資料이다.

뿐만 아니라 古地圖上에 示顯된 自然및 人文景觀을 現實과 比較함으로써 歷史地理的 課題인 景觀復原에 좋은 資料가되고 있으며 또한 地圖製作上의 테크니칼 프로세스를 檢討하므로써 近代的地圖가 製作되기 까지의 體系있는 過程을 엿을수가 있다.

더구나 死藏된 民族文化財를 發掘하고 그 優秀性을 올바르게 認識하여야할 오늘날 古地圖의 研究는 地理學徒뿐만이 아니라 歷史學徒 科學徒들에게 까지도 賦課된 時急한 課題이기도 하다.

二. 研究에 必要한 文獻資料分類

韓國에 現存하는 古地圖는 그 數가 많지만 多大數가 個人私藏으로 되어있고 數個處 圖書館에는 그 目錄뿐이지 實地로 볼수있는 것은 極히 稀有

하다. 大抵 이分野의 研究로는 近間 李丙燾 博士나 洪以燮氏와 같은 國內 史家들의 손에 依해서 어느程度 關心을 갖게 되었지만 過去 日本사람들의 研究實績도 相當數에 達한다. 其中 古地圖와 古地理書에 對한 專問的 研究實績만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朝鮮 古地圖 展觀目錄：京城帝大刊
- ② 朝鮮 最古의 地理書について：三浦周行 著
- ③ 朝鮮의 地圖について：豊田四郎 著
- ④ 李朝に 於ける 二・三의 朝鮮全圖について：青山定雄——東方學報 1939.1——.
- ⑤ 八域誌に 就いて：三木榮 —— 書物同好會會報 1939.3 ——.
- ⑥ 古地理誌：松谷學人——金融組合 1941 ——.
- ⑦ 朝鮮의 諸地圖：クリツフイス(小倉親雄譯)
- ⑧ ペテルマン 地理通報所載 朝鮮全圖に就いて：小倉親雄 —— 書物同好會報 1942——.

以上은 純 韓國 古地理書 및 地圖에 關한 專問的 研究이나 隣邦 中國의 古地圖에 關해서는 더욱 많은 研究가 있다. 우리나라의 古地圖를 理解하는데에 副教材의 役割을 할것이다.

- ① 中國地理學史：王庸著——商務印 書籍——.
- ② 支那地圖學의 發達：小川琢治 著 ——弘文堂——
- ③ 東亞地圖의 歷史的變遷：中村 拓 ——城大 大陸文化 研究會——
- ④ 中國地圖 史綱：王庸 著
- ⑤ 宋代의 地圖と その特色：青山定雄 ——東方學報 1940——
- ⑥ 宋代의 地圖と 民族運動：増田忠雄 ——史林 1942——
- ⑦ 支那의 山川誌：青山定雄——龍谷學報——
- ⑧ 支那上代의 地圖と 地誌 特に 地方誌について：青山定雄——立正史學 1938——
- ⑨ 地理學家 朱思本：內藤虎次郎 ——讀史叢錄 1929——

⑩ 地理學家 徐霞客：竺可楨

——商務印書館 1948——

⑪ 元代の 地圖について：青山定雄 —— 東方學報 1938——

⑫ 明代의 地圖について：青山定雄 —— 歷史學研究 1937——

⑬ 妙心寺 麟祥院藏 混一歷代國都 疆理地圖について—神田博士 還曆記念 書誌學 論集 1957—

⑭ マテオ リツチ의 世界圖에 關する 史的 研究：鮎澤信太郎——橫濱市立大學 紀要 1953——

⑮ Old Chinese World maps Preserved by the Koreans : H. Nakamura——Imago Mundi 1948——

⑯ 南懷仁 著 坤輿圖說에 就いて：秋岡武次郎 —— 地理教育 1938——

⑰ 地圖學史：岩波講座 地理學

⑱ 清初測繪地圖考：地學雜誌 1930

等等은 우리나라 圖書館에서 그 一部分 밖에 찾아볼수 없다. 斷片的으로는 韓國 書誌學會 刊書誌 第一卷 第一號 및 第二號에 李丙燾 博士님 研究로 되어있는 “東國地圖” “江都地圖”가 紹介되어 있고 韓國 歷代地圖에 關한 概括的인 紹介로는 洪以燮氏의 “朝鮮科學史”, 李智皓, 洪始煥氏 共著로 되어있는 “地圖의 研究”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그 以外에 古山子 金正浩先生의 著書인 “大東地志”에 歷代地圖에 關한 事項들이 一括 紹介되어 있다고 한다.

以上에 列擧한 資料들이 比較的 古地圖 研究에 關한 直接的인 專問的 資料로서 도움이 된다면 間接的으로 도움이 될수있는 參考書籍 가운데에 史書로서 朝鮮史, 高麗史, 王朝實錄等이 있고 地理書로는 新增東國輿地 勝覽, 世宗實錄地理誌 擇里誌 等이 있다. 其他 書誌의 文獻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種類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① 朝鮮圖書解題：朝鮮語研究會編 1944年

② 朝鮮關係 圖書論文 目錄：城大編 1937年

③ 朝鮮의 書籍：古川兼秀著 1937年

④ 朝鮮本 あさり：八百谷孝保 —— 日本古書通信 1937年——

⑤ 朝鮮書誌序論：マシ・ロイズ 英譯・小倉親雄 譯註 1941年——

⑥ 朝鮮의 書籍과 文化：モリス克蘭 金壽卿 譯 —— 人文評論 1941年——

⑦ 奎章閣圖書와 李朝實錄：金亨奎 —— 春秋

1941年——

⑧ 明治以降 朝鮮書誌學文獻一覽：櫻井生 —— 書物同好會 會報 1941年——

三. 類 別

지금까지 發見된 古地圖를 一瞥하면 唯特히 獨創的 創意에 依한 것도 있지만 大概是 模寫에서 傳傳래온 것이 많다. 製作年代라든지 製作者를 推定하는데 도움이 될려면 多種多樣한 地圖의 形式과 그 內容을 區分하여 따져 봄지도 하다.

李丙燾 博士님은 古地圖의 種類를 內容上 形式上으로 二大別하고 있으며 그중에 形式上의 分類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1. 準地圖(寫生的, 繪畫의 性格)…寺院, 邸宅.

名勝圖 등…精粗로 다시 區分.

2. 純粹한 地圖…半想像圖, 精製圖.

다시 이것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하기 위하여 보다 具體的으로 分類하면 規模上, 內容上, 製作形式上, 表現上으로 四大別할수도 있겠다.

① 規模上의 分類

表現된 內容의 地域的인 範圍로 보아 本邦地圖나 或은 海外地圖나, 或은 道別地域地圖나, 全國을 表示한 圖幅이나, 에 따라 區分되는 것을 말한다.

② 製作形式上의 分類

一面 製冊, 編輯形式上의 分類와도 같겠다. 例를 들면 農圃子 鄭商驥氏의 東國地圖와 같이 한冊의 Atlas를 作成하는데에 있어서 小縮尺의 全圖와 그보다 大縮尺의 道別地圖를 鑲여놓은 狀態를 意味하고 이들 道別地圖를 合치면 全圖가 된다. 이때 이러한 道別地圖를 分圖 또는 分合圖라고 한다.

③ 內容上의 分類

記載된 內容이나 그 利用 如何에 따라 道勢圖, 郡勢圖, 營邑圖, 都城圖, 要塞圖, 邊境圖(疆域圖), 海鎮圖(水營圖), 道里圖(交通圖), 水勢圖, 名勝圖, 風水圖, 宮闕圖, 官衙圖, 山陵圖, 寺刹圖, 祠院圖, 邸宅圖, 官府圖 等等이 있겠다.

④ 表現上의 分類

大概 어느나라의 地圖나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地形 地物의 標識도 記入되어 있지 않고 다만 地名만을 記入한 素朴한 地圖가 있었는가 하면 (第二圖) 半想像的인 繪畫式으로 共通的인 標識도 없이 아름답게 그려 놓은 地圖들

이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山水畫인지, 地圖인지 分問할 수 없는 것으로 要塞圖, 都城圖 宮闕圖, 邸宅圖 등에 많다. (第一圖) 이러한 것들은 大部分이 兵營이나 要塞, 城郭 등을 방어하기 위한 武官들의 常備用 或은 裝飾品으로 쓰인 것 같다. 이름을 부쳐보면 第二圖와 같은것을 想像圖라 할수있겠고 第一圖와 같은 山水畫式 都城圖 要塞圖를 寫生的 鳥瞰圖라 할수있겠다. 그 表現 方法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는 있지만 中世紀佛敎系, 기독교계 地圖에 이러한 것들이 많다. 그以外에 이름 그대로 地圖의 形式을 갖춘것이 있는데 이들도 實測하여 精巧하게 製作한 것을 實測精製圖라 할수 있겠고 實測은 아니지만 境界, 地形, 地物 등 多彩로운 標識, 凡註를 驅使한 것으로 보아 어느程度 地圖의 形式을 갖추고있는 것을 半想像的 地圖라고 말할수 있겠다. 前者에 該當하는 例로는 大東輿地圖, 東國地圖(第六圖) 등이 있겠고, 後者에 該當하는 것으로는 作者 未詳인 朝鮮全圖(第四圖), 海左全圖(第五圖) 등이 그 좋은 例라고 할수있겠으나 지나친 私見은 아닐지 모르겠다.

흔히 中國의 地圖나 我邦 地圖中에 “輿圖” 或은 “輿地圖” “廣輿圖”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 많다. “輿”은 수레 或은 地球, 大地란 뜻이 있다. 大地는 萬物을 수레처럼 싣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여지 겠으나 구태여 어떤 時期부터 “輿”字를 많이 써서 圖名을 밝힌 것을 보면 一方 새로운 地理觀을 表現한 것도 있겠고 他方 中國 國民들의 中華思想, 大國思想을 表現한 面도 없지 않겠다. 辭典에 依하면 “輿地圖”……地圖란 뜻으로

十八史路에 東漢光武帝披輿地圖指示鄧禹라 하였고 “輿圖”……地圖란 뜻으로 元史世祖紀에 輿地圖廣歷古所無라 하여있다. 이대로 하면 輿地圖란 말은 相當히 오래前부터 使用되어온것 같다. 그러나 地理學史上에는 “輿地”란 말을 使用한 地理書나 地圖가 宋代 以後에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歐陽悠의 “輿地廣記”, 王象之의 “輿地紀覽” 祝穆의 “方輿勝覽” 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筆者의 獨斷이겠으나 그 題書에 있어서 地理書나 地圖에 “輿地誌” 或은 “輿地圖”라고 쓰여 있음이 一定 時期부터 많아진 것을 보면 무엇인가 地理觀에 對한 새로운 認識을 表現한 말이 아닌가 思慮 된다.

四. 我邦全圖에 관한資料

記錄에 依해서 본다면 我邦全圖에 있어서도 數가 相當하나 筆者가 모아놓은 寫眞으로는 五·六種된다. 이것도 大部分이 그 作者와 年代는 未詳이다. 그 地圖에 表示된 地名, 境界 그리고 筆體로 보아서 대충 製作年代의 上限과 下限을 推理한다든지, 製作技術의 變遷을 살피 본다든지, 또는 時代的으로 漸次 擴大된 地理的 視野와 地域相互間의 連帶性을 살핀다든지, 또는 河川流路나 通路, 所在地의 變化等을 對照한다든지 하는 일은 韓國地理學徒들에게 開拓되어야할 荒蕪地이다. 筆者의 研究도 亦是 거기에 未洽하므로 다만 各地圖의 外的輪郭만을 研究資料로서 紹介할 뿐이다. 이들 五·六種의 地圖에 관한 事項을 簡單하게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全圖一覽

地圖摘要	朝鮮圖	朝鮮全圖	朝鮮八道總圖	東國地圖	海左全圖	大東輿地圖
作者	柳相國	?	?	鄭商驥	?	金正浩
年代	國 宣祖 33 年	?	?	肅 4 ~ 英 28	?	哲宗 12 年
	西 1600 年	?	?	1678 ~ 1752	?	1861
所藏	華山書林	李丙燾 박사	李丙燾 박사	李丙壽 박사	李丙壽 박사 崔福鉉先生, 通文館華山書林	서울大學校 其他
類別	想像圖	半想像的地圖	半想像的地圖	實測精製圖	實測精製圖	實測精製圖
記載事項	道名 所在地名 江山名	山, 河川 所在地 凡註記 名勝地	山, 河川 道名 古地名 嶺	山, 河川, 所在地 道名, 驛, 通信 道路, 縮尺 凡註, 其他	山, 河川 道界, 所在地 名勝地, 交通路 驛, 凡註	山, 河川, 驛 堡, 城, 兵營, 驛, 交通路, 通信 凡註 其他

精實像	粗想測如否	半粗想像	精半想像	半粗想像	精實巧測	精實巧測	精實巧測
	柳想國著 憲慈錄 中에 插入된 地圖 로 明治年代에 日 本版으로, 模寫되 어있다. 地圖의 體 제도 全然 무시되 어 있고 本國原形 과 너무나 다르다 뿐만 아니라 東西 南北의 方位도 東 이 下側으로 되어 있다. 아마 壬亂時 의 體驗을 基礎로 그린것 같다.	右上下六項目 의 註記는 古地 名의 解說, 行政 區域의 變化에 대해서 쓴 것이 다. 平安道 咸 鏡道部分이 仔 細하지 못하고 原形보다 窄그 린 것으로 보 아 그만큼 地理 의 視野가 좁았 던 開拓도 뒤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樞口 素朴한 略圖로 朝鮮 八道各國地圖 帖에 所載되 어 있다. 모 양이나 바다 의 표식이 東 國輿地勝覽所 載圖와 흡사 하나 古地名 이 記入된 것 으로 보아 歷 史地圖類에 該當한다고 보겠다.	原本의 模寫本 (正祖 十七年以 前)이 아닌가 推 測하고 있다. 外 樣이 原形에 거의 비슷하고 縱 9.5 cm의 百里尺표 시, 凡註표시, 精 巧하고 詳細한 內容이 ick 우수 하다. 李박사에 의 하면 古山子 地圖도 이를 參 고 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하고 있다.	全土外樣은 發展的이나 地圖만큼 精巧하 지 않다. 道界가 未 정하고 筆體가 復 雜한 것으로 보아 최후의 推測으로 新刊으로 推測된 다. 註記의 一部에 純祖 二十二年置 州으로 보아 그 다 훨씬 이후의 地 圖라고 보겠다. 註 記에는 名勝古蹟, 연혁, 행정구역 의 變遷等 重要地 가 記入되어 있다.	全土를 12段으로 橫切, 1段 120里 10里 方眼設定, 縮 尺은 約 1:16만 本圖는 많이 紹 介되어 있으므로 以下 略. 이보다 앞서 183 4年에 靑丘圖가 製 作되었다.	

그 밖에 記錄으로만 본다면 本邦地圖에 關한 事項은 數多하다. 即 高麗史에는 毅宗二年(1148年)에 宋의 奏檜에게 高麗圖를 보냈다는 記錄이 있고 成宗實錄에는 다음과 같은 多彩로운 地圖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內容은 實物을 보지 못하니 알수없다. 다만 그 種目과 製作者만을 列擧해둔다. (道別圖包含).

① 成宗實錄十三年二月 壬子(1483年)

八道圖(李蒼), 八道圖(鄭陟), 兩界大圖小圖(鄭陟), 沿邊城子圖(梁誠之), 兩界沿邊防戍圖(梁誠

之), 八道州郡圖(梁誠之), 八道山川圖(梁誠之), 沿海漕運圖(安哲孫), 濟州三色圖(梁誠之), 平安道沿邊圖(李淳叔), 永安道沿邊圖(魚有沼), 三下道監司營圖(李淳叔).

② 成宗實錄十五年三月 癸卯(1485年)

東國輿圖(鄭陟, 梁誠之), 本國輿地圖(李封)

筆者가 本邦地圖(全圖)에 關한 寫眞은 不過 五·六種밖에 作成치 못했다. 그러나 分明히 國內에서 찾아볼수있는 것으로 쓰는 다음과 같은 種目들이 現存하고 있다.

地圖名	版	編	所藏	所藏者	推定年代	備考
東國地圖八道圖	古寫本	一帖	華山書林	肅宗	初	
朝鮮八路地圖	古寫本	大幅一枚	〃	光海君時	木刻	仁祖時에 模寫
天下圖	古寫本	一帖	通文館	?		世界圖, 朝鮮中國圖, 各道別圖 포함
八道地圖	〃	一帖	華山書林	英祖	27年頃	孝純賢嬪魂宮都監堂座目
海東輿地全圖	木版	一帖	〃	英祖	中葉頃	
輿地圖	古木板	一帖	〃	純祖	中葉頃	
輿地圖	木活字板	一帖	〃	純祖	末頃	
輿壘全圖	?	一枚	〃	高宗	初頃	
大韓輿地圖	?	一枚	〃	光武	初	
大朝鮮國全圖	?	一帖	〃	〃		
東國地圖	?	一帖	〃	純祖	末	

古山子 金正浩 先生의 大東輿地圖는 너무나 有名하고 많은 資料가 紹介되었다. 本欄에서는 이 地圖에 關한 優秀한 農圃子 鄭商驥氏의 東國地圖(第六圖)에 關한 資料를 比較的 詳細히 紹介하기로 한다.

本地圖는 現在 鄭氏의 後孫 鄭燦鎬氏家에 全圖와 分圖의 模寫本이 傳한다고 하며 또 李丙燾博士가 同全圖와 分圖의 精寫本을 所藏하고 계신다. 書誌第一號에 紹介된 李博士의 研究를 簡單히 通해보면, 本地圖는 李朝 肅英間(著者時代 1678

~1752)에 製作되었고 正祖 十七年(1793年) 以前에 그 模寫本(現所藏)이 製作되지 않았나 推測하고 있다. 有名한 古山子의 大東輿地圖가 哲宗 十二年(1861年)刊이나가 近百餘年 以前에 이미

大膽한 手法으로 我邦地圖가 비로소 原形에 가까운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있다. 이 地圖는 全圖와 分圖로 되어있고 全圖는 大幅圖로서 그 幅面의 長이 약 2.51m, 廣이 1.40m의 크기가

다. 分圖는 表紙에 “海東八路圖”라 題書하여 있고 都合 九貼으로 되어 있는데 各幅面의 長이 約 1.02 m, 廣이 約 0.61 m 의 크기이다. 第一貼은 八道總圖, 第二貼은 京畿忠清道, 第三貼은 慶尙道 第四貼은 全羅道, 第五貼은 平安道, 第六貼은 黃海道, 第七貼은 江原道, 第八貼은 咸鏡南道, 第九貼은 咸鏡北道로 各各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 地圖에는 凡例, 製作動機에 관한 說明이 記錄되어 있고, 9.4 cm 垂直으로 百里尺의 縮尺이 表示되어 있다. 本圖(分圖)의 末尾凡註에도 地圖의 實用的 使用 目的을 力說하고 있지만 鄭氏는 實學의 影響을 받아 東國地圖 以外에도 人子備鑑, 農圃問答, 深衣說, 韜鈴篇, 鄉居要覽, 治郡要覽等 經世濟民을 目的으로 한 著述을 남겼다고 한다. 本地圖의 手法이 精巧細密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實用的인 目的에 隨伴된 水陸通路, 通信網等 多彩로운 內容을 포함하고 있어 實로 我邦地圖 製作에 있어서 最初의 現代的 革命的 改新을 가져온 셈이라고 한다. 더구나 그 縮尺의 使用은 어떠한 外來地圖의 影響도 전혀 받지 아니한 自己創意에서 나온 것으로 李博士는 考證하고 있다. 距離測定에 있어서 使用된 百里尺은 그 基點을 中央인 서울에 두되 平坦地는 百里尺을 使用하고 山峽水曲迂回處는 百二·三十里를 一尺으로 하여 伸縮성을 가져왔다는 記錄을 남기고 있다. 勿論 이 記錄만으로 本圖가 全國各處를 實測에 依하여 製作하게 된 地圖인지 아닌지 如何는 斷定키 어려우나 그 外樣이 現우리나라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전혀 想像이나 半想像의 으로 만이 루어진 地圖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本圖 末尾에 記錄된 著作者의 說明은, ① 地圖製作의 趣旨, ② 全圖, 分圖의 製作 및 그 編輯上의 要旨, ③ 百里尺 使用法, ④ 彩色法 및 各標識上의 凡例 等으로 되어 있거니와 製作上의 技術의 인面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니 原文을 그대로 옮겨둔다.

「我國地圖之行於世者不知其數而無論其模本印本皆從紙面濶狹方圓而爲之故山川道里盡爲相左十餘里之近者或遠於數百里數百里之遠者或近於十餘里以至東西南北或易其位若按其圖而欲往遊於四方則無一可據與冥行者無異矣予以是病焉遂作此圖凡山川之險夷道里之遠近以尺爲量隨其自然而爲之以百里爲一尺以十里爲一寸自京

師度之以至四方先爲全國一通使八路之形長短方圓定其體狀然後分之爲八張以便屏幃之成帖若求全形再合其縫則可復爲一矣非若他本之局於紙面雖欲付貼而四下絃界終不可符合者也第既分各圖宜其八路之各成其一而至如咸鏡道壤地廣遠不可以一幅紙容載故分其南北二張其如綏甸與湖西則幅員不闊足可並模故以其兩道作爲附圖以備八帖之數且關西之東北一隅最爲廣漠不能盡收於本幅乃以古茂昌巖厚州等地割附於咸鏡南道之在又其海島之絕遠如濟州鬱陵黑山紅衣可佳者不能如其里數而只分所在方位而附盡於元幅之末又其各道分城處有嶺脊江水者不得不重模而疊寫是亦固然之勢或有欲合模者須知其模其一而去其一則不可失全形矣其用尺之法若當平夷之地則量百合里全用一尺而於其山峽水迂回不平處則或以一尺量定百二三十里理勢然也若其施采卡色則京畿純黃湖西紅白湖南純紅嶺南青紅嶺東純青海西純白關西白黑關北純黑山以綠水以青紅線畫水陸大路黃線別左右分界城形而點紅以記烽燧數揀而留白以表山城營邑有城外施白線驛堡成圖乍分青黃此皆作圖之凡例覽者祥之」

五. 海外地圖와 거기에 表現된 韓國

記錄을 통해서 보면 우리 손으로 製作한 海外地圖는 數種에 不過하다. 그것도 大部分이 中國 日本附近을 包含한 隣邦諸圖에 관한 것들이다. 例하면 太宗六年(1402年)에 金士衡, 李茂等이 製作했다고 하는 混一歷代帝王疆理圖, 或은 成宗二年(1471年)에 申叔舟가 著述한 海東諸國記 所載圖, 宣祖二八年(1595)에 鄭舜功이 남겼다고 하는 日本一鑑 所載 日本行基圖등이 記錄에 남아있으나 實物이 傳하지 않으므로 그 內容을 알 수가 없다. 原本이건 模本이건 間에 우리나라에 現存하며 찾아보기 쉬운 古地圖로서 外國 地圖類는 다음과 같은 五·六種이 있으며 이들을 資料로 해서 外國人들의 韓國에 對한 地理的 認識이나 反對로 韓國人들의 外國에 對한 그것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찾아보기 쉬운 海外地圖一覽

地圖名	板	編	所 藏	備 考
天下輿地圖	古木板	一枚	華山書林	朝鮮 仁宗이 表現되어 있는 古品
天下總圖	木板	一帖	通文館	同帖 所載
朝鮮中國圖	〃	〃	〃	
西洋諸國圖	〃	〃	李丙燾 朴사	朝鮮八道各國地圖帖中(第二圖)參照

天下地圖, 南贛部 州萬國掌集之圖	日本 木板	一枚	華山書林	日本國 寶永七年 刊
大清一統天下地圖	古寫 本	〃	〃	
乾輿萬國全圖			서울大學 校	利瑪竇作
坤輿圖			기독교 박물관	南懷仁作

自古로 우리나라가 隣邦中國이나 日本과 文化的 交流가 빈번했던 故로 隣邦諸國의 地理에 關心이 많았음은 勿論 이들의 表現에 있어서도 特히 中國의 그것을 본받음바 적지 않다. 中國에 있어서는 이미 六朝時代부터는 많은 僧侶들이 印度를 다녀와서 그들의 歷程을 記錄으로 남기고 있다. 가령 法顯의 佛國記, 康泰의 吳時外國傳, 彥琮 裴矩의 共著로 되어있는 天竺記, 王玄策의 中天竺國行記, 玄奘의 大唐西域記, 義淨의 南海寄歸內法傳 등은 當時 中國을 비롯한 西域, 印度等地에 관한 地誌의 知識을 널리 普及하게 된 셈이다. 이에 隨伴해서 그들의 歷程을 素朴하게 表現한 佛教系世界地圖가 많이 나왔고 特히 晋代의 裴秀(224~271 A. D)라는 者는 測量製圖法을 研究하여 이미 分率(縮尺), 準望(方位), 道里(距離), 高下, 方邪, 迂直의 六要素를 參酌한 大規模의 地圖를 製作하였다고 한다. 그 以外에 唐代의 賈耽(730~805 A. D)이란 사람은 關中隴右及山南九州圖, 海內華夷圖, 古今郡國縣道四夷述四十卷 등 裴秀의 圖法에 못지않는 優秀한 地圖를 製作했다고 하는데 特記할 것은 一寸百里 縮尺의 方格을 쓴 것으로 보아 後에 明代의 地圖(廣輿圖), 및 우리나라 地圖(華山書林所藏 天下輿地圖 參照)는 이 影響을 받은 것이 아닌가 思慮된다. 玄奘과 義淨의 記錄은 우리 나라 佛教界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이려니와 特히 玄奘의 大唐西域記를 土台로한 世界地圖(印度中心)로는 高麗時代에 尹輔라는 者가 “五天竺國圖”라는 이름으로 製作한 바 있다고 高麗史에 記錄되어 있다. 勿論 本圖는 傳하지 않으므로 우리 나라를 어떻게 表現했는지 알길 없으나 現在 日本 法隆寺 所藏 “五天竺國圖”는 卵形으로된 印度 中心의 世界에 當時 高麗를 文字上으로만 右上端部에 設치려 表示하고 있다. 이 地圖는 日本 鎌倉末期(1294年)에 成立되었으리라고 推定되는 拾芥抄란 地理書에 所載된 것으로 1364년에 筆寫한 것이라고 한다. 勿論 尹輔의 地圖와 拾芥抄에 所載된 地圖가 같다고는 斷定할

수 없으나 大唐西域記를 土台로한 點, 그리고 年代가 그 무렵인 것으로 보아 서로 비슷한 地圖가 아닌가 생각된다.

西洋人들의 地圖 가운데 우리 나라가 最初로 表示된 것은 大發見時代의 地圖라고 생각되는데 西洋人들의 地理的 視野가 全世界의 으로 擴大되자 印刷術의 發達에 隨伴된 地圖出版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地球全體가 비로소 하나의 世界로 表示된 것은 勿論이려니와 各大陸의 配置도 어느程度 原形에 흡사하게 되고 나아가서 圖法(Projection)도 問題로서 提起되었다. 이에 有名한 사람과 그의 地圖를 들면 Martin Behaim의 地圖(1492年)와 地球儀, 후랑다스學派를 形成하게 된 Gerardus Mercator와 그의 세계지도(1566年), 新大陸을 처음圖上에 表示한 Waldse Müller와 그의 地圖(1507年), 그리고 Petrus Apianus와 그의 세계지도(1524年)……등등 그 以外도 많은 數를 헤아릴수 있다. 그러나 그들 地圖의 抄寫本이나 寫眞本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나타나있지 않다. 다만 그보다 나중에 出刊된 Abraham Ortelius(1527~1590)의 世界地圖上에는 우리나라가 길다란 點으로 表示되어있다. 그는 Mercator가 세계지도를 남긴 以後 그의 地圖를 修正製作한 唯一人者이다. 그는 1570년에 “Theatrum”이라는 表題로 Atlas를 編纂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쪽의 세계지도와 4쪽의 各大陸圖, 56枚의 유럽圖, 6枚의 아시아圖, 3枚의 아프리카圖를 包含하고 있다. 이 Atlas는 總 41版이 刊行되고 終刊이 1612년에 該當된다. 여기에 表現된 우리나라가 當時 어떤地圖를 參考로해서 插入되었는지는 明確히 알길 없으나 우리 나라를 點으로 표시한 點으로 보아 隣邦의 中國이나 日本에서 製作된 地圖가 西洋人들의 손에 傳達된 것이 아닌가 思慮된다. 왜냐하면 寡聞之愚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사람이 製作한 地圖로는 韓國을 點으로 表示한 것을 일찌기 보지 못했다.

元代에 들어와서는 그들을 通해서 이슬람文物이 傳來되고 特히 地理分野에 있어서는 中國이나 韓國이나 간에 적지 않은 影響을 받고있다. 西曆 1267年(고려 고종 44)에 아라비아에서 札馬刺丁이 苦來亦撒麻(天球儀)와 苦來亦阿兒子(地球儀)를 元나라에 傳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表現되었는지 如否는 알길없고 다만 그의 影響을 받아 製作된 元나라 朱思本의 “輿地圖”, 李澤民의 “聲教廣被圖” 僧 清澹의 “混一疆理圖” 등은 後에 本邦의 金士衡, 李茂등이 製作한 “混一疆理歷代帝王之圖”의 母體가 된셈이다. 日本사람들의 記錄에 依하면 本圖는 現 日本 妙心寺麟祥院所藏으로 되어있고 製作者는 朝鮮人 權近으로 되어있으며 그 圖名도 “…國都 之圖”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刊記도 太宗二年으로 되어있어 韓國史家들이 밝힌 바에 比하면 四年이 앞서고 있다. 本圖가 우리나라에 現存치 않으므로 좀애매하나 아마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아비아의 地球儀를 모방하여 바다는 綠色, 淡水는 靑色으로 彩色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本圖의 抄寫本을 보면 新大陸을 除外한 유럽, 아프리카까지 흡사한 輪廓으로 表示되어 있어 우리나라사람들의 地理의 視野도 이 무렵에 와서는 꽤 擴大되었음을 알수있다.

中國의 地圖에 우리나라地圖가 插入된것을 찾아 보면 明代以後에 많고 또한 많은 地圖가 傳來되어 적지않은 影響을주었으리라고 推量된다. 明朝에 있어서는 楊子器가 大明輿地圖(1488~1505) 羅洪先이가 廣輿圖(1554), 陳組綬가 皇明職方地圖(1636) 李默이가 天下輿地圖(1530), 吳悌가 皇明輿地之圖(1536)를 各各 製作하였다고 하는데 그中 廣輿圖를 보면 朝鮮國이 右 上半에記入되어 있다.

이것이 中國에 現存하는 最古의 世界地圖라고 한다. 華山書林에 所藏되어있는 天下輿地圖를 보면 이와 흡사하다. 即 바다는 標識, 몽고에서 西域에 이르는 사막의 標識, 東西南北으로 그어 놓은 格子, 地名의 表記法등이 그러하다. 원체 品이 남아서 뚜렷한 內容은 살필수 없으나 外的輪廓만은 廣輿圖에 比하여 相當히 修正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廣輿圖의 改正 模寫本이 아닌가 한다.

成宗實錄을 보면 弘文館에서 天下圖를 製作했다고 하는데 海野一隆氏의 所說에 依하면 “環狀의 陸地가 中國大陸을 둘러있고 그 주변을 다시 바다가 環狀으로 表示되어있다”…云云한 것을 보면 現 通文館에 所藏된 “天下總圖”인듯 하다.(第三圖) 이것은 表題에 天下圖라 쓰여있고 한幅의 世界地圖(天下總圖)와 한幅의 朝鮮 中國圖,(第三圖) 그리고 我邦 各道別圖가 包含된 Atlas 이

다. 第三圖를 參照하면 推量할수 있으려니와 天下總圖는 마치 아라비아의 “이븐하우칼” “이드리시”등이 製作한 세계지도와 흡사하다. 特히 그들의 世界像과 比較할 수있는 것은 우선 天下가 圓이며 大陸을 中心으로 해서 Oceanus(環流)가 둘러있다는 思想이다. 이러한 思想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我邦에 들어왔는지는 알수없으나 成宗 때이면 이미 元나라의 많은 地圖가 우리나라 地圖에 影響을 주고 있었으며 明朝에서는 楊子器의 “大明輿地圖”를 비롯하여 數많은 世界地圖가 出刊될 때이다.

中國이나 日本의 古地圖는 相當히 오래前부터 우리와 交流된 것 같으나 西洋사람들의 地圖는 李朝中葉以後에 들어서야 우리나라에 傳來되고 이것을 바탕으로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로소 全體의으로 世界를 認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李丙燾博士의 所說에 依하면 西洋의 地圖가 我邦에 傳來된 것으로는 趙明使 李光庭이 宣祖 36年(1603)에 明京에 이서 얻어온 유럽地圖(六幅)가 最初가고 그 다음은 仁祖9年(1631) 趙明使 鄭斗源이 西洋人 陸若漢(Johanes Rodrigues)에게 萬里全圖를 얻어왔고 崇禎初(1628~1644)에 獨逸人 湯若望(J. Adam schall)의 所作인 坤輿圖(八幅)가 傳來되고 다음에 南懷仁(Ferdinand Verbiest)의 坤輿圖가 1674年에 傳來되었다고 한다. 그中 現存치 않는 것이 大部分이나 南懷仁의 地圖나 利瑪竇의 乾輿萬國全圖를 통해서 보면 이미 韓國은 勿論, 世界가 하나로써 그 原形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며 經緯線의 標識法에 따라 그 投影法까지도 相當程度 考慮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利瑪竇(Mateo Ricci)는 伊太利의 宣教師로서 일찌기 北京에 滯留하는 동안 天文 地理 歷算에 관한 知識을 널리 普及하였고, 그의 地圖는 1602年에 製作刊行한 것으로 되어있다. 現 서울大學校 博物館所藏圖는 그 以後의 寫本으로 年代 및 日附는 肅宗 34年(1708年) 12月 30日로 記錄 되어있고 최석정이란 사람이 序文을 屏風 右 上端에 記入하고있다. 本圖는 中國日本에도 널리 普及되어 남은 東洋의 世界觀을 打破한點 너무나 明顯하다. 그의 地圖에 依하면 地球는 扁平橢圓體이고 유럽, 리비아, 아시아, 南北美, 메가라니카(南方大陸)의 五大陸으로 區分 彩色되어있다.

現在 기독교박물관에 所藏되어있는 南懷仁의 坤輿圖는 淸康熙 甲寅年에 傳來되어 東西兩半球의 모습을 보다더 仔細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도 北京에 滯留하던 宣教師이지만 그 무렵(淸朝)부터는 더욱 많은 西洋人들이 東洋에 關心을 가져 往來했고 드디어는 三角測量에 依한 近代의인 精密圖가 完成되었다. 中國全土가 이렇게 하여 完成된 것은 1718年 우리나라의 肅宗朝에 該當한다. 이것이 “皇輿全覽圖”이고 後에 佛國에 傳하여 有名한 D'Anville의 Atlas Universel(1780年)에 插入되었다. 우리나라 全土가 實地測量된것은 1905年에 步測으로 始作 1919年에 朝鮮總督府에서 機械 測量이 完了된 것이 처음이다. 여기에 比較하면 中國本土는 이미 二百餘年이나 앞서 科學的으로 西洋人들에게 알려진 셈이다. 우리나라가 西洋에 紹介되고 또한 우리가 넓은 世界를 漸次認識하게된 過程은 勿論 各種 文書資料를 總動

員해서 研究해야 할일이다. 그러나 古地圖의 研究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事實을 簡單하고도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런 事實以外의 값있는 眞理를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 列舉한 資料分類는 韓國에서 發見된 古地圖의 外的인 面만을 살핀 것에 不過하다. 或然 筆者의 지나친 主觀이 없지 않을 것이니 同學諸賢들의 따뜻한 가르침을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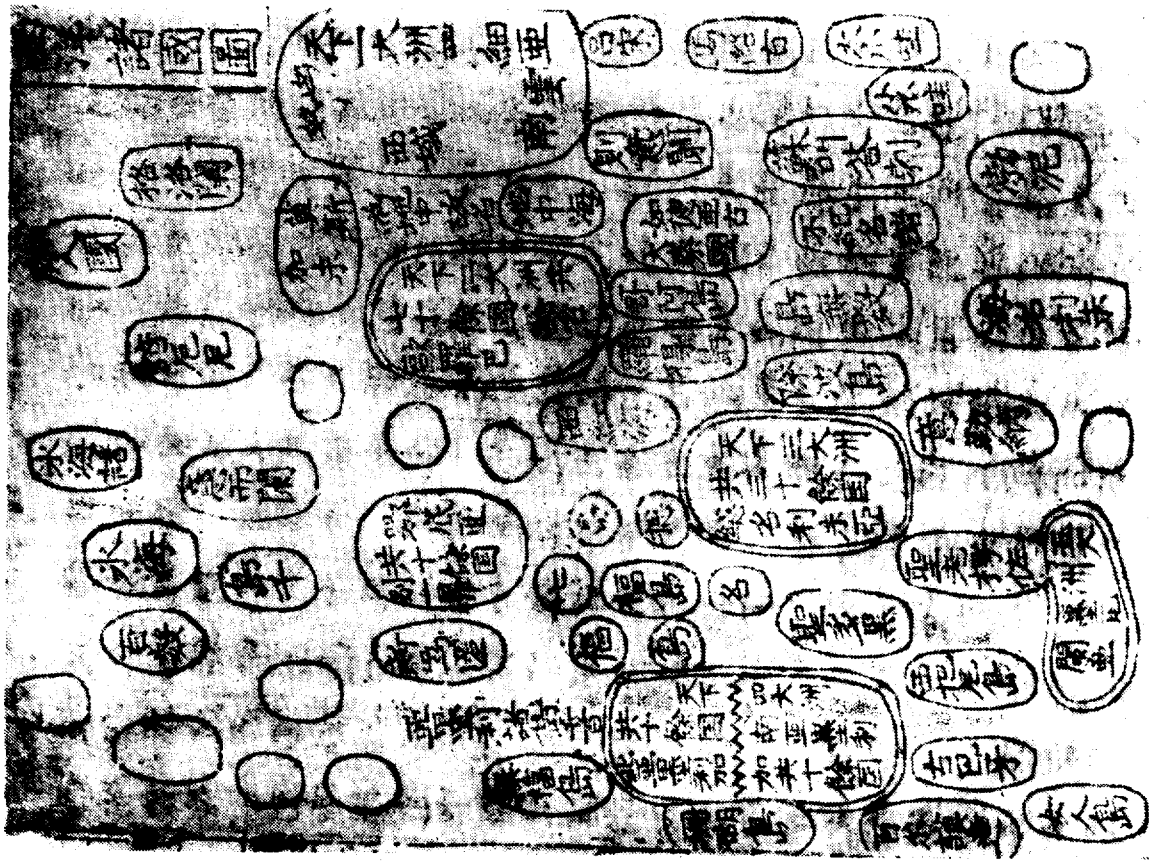
(公州師範大學)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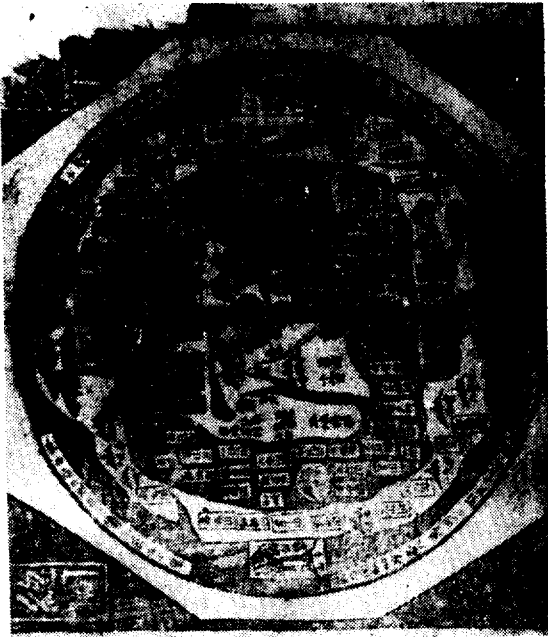
- 第一圖 全州圖
- 第二圖 西洋諸國圖
- 第三圖 天下總圖및朝鮮中國圖
- 第四圖 朝鮮全圖
- 第五圖 海左全圖
- 第六圖 東國地圖



第一圖全州城圖



第二圖 西洋諸國圖



第二圖 天下總圖，朝鮮中國圖



第四圖 朝 鮮 全 圖



第五圖 海 左 全 圖



第六圖 東 國 地 圖